"터지면 다 죽는다" 뇌관만 일단 제거

■ 한나라 재보선 7일만에 내분 봉합

갈등 불씨 여전…봉합 첫 날부터 신경전

지도부 사수…박 전대표측 '판정승' 평가

이명박 전 시장이 4·25 재보선 참패 이후 심화돼온 당 내분 사태와 관련, 강재섭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함에 따라 한나라당 내홍은 재보선 후 7일 만에 극적으로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한나라당의 내분 사태는 수습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히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앞으로 더 자주 부딪히며 양측간 신경전이 한층 노골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선 룰과 후보 검증, 당직 인선 등 양측이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소재가 곳곳에 매설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당 수습의 상징적 시발로 추진된 강재섭 대표와 박 전 대표, 이 전 시장간 회동이 일정잡기에서 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오는 4일 오후 염창동 당사에서 '티타임'을 갖는 것으로 최종 결론은 났지만, 양측 일정에 따라 몇 차례씩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또 이 전 시장 측은 강 대표 체제를 수용하면서 경선 룰을 포함한 추가 쇄신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최고위원이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이 전 시장이 만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였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 진영은 사태봉합 첫날부터 최대 현안인 경선 룰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시장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많은 후보가 경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표 측인 김재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경선 룰 관련 50여개 쟁점은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자고 하면 어마어마한 분란이 생길 게 뻔하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측은 향후 당직 인선과 사고지구당 정비, 인재영입위원장 영입, 경선관리위 구성, 후보검증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도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내분 사태로 박 전 대표 측이 이 전 시장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지도부 재신임 거부를 고민하던 이 전 시장 측이 고집을 꺾고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표는 애초부터 '지도부 사수'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 장악력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라는 큰 판을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분이 수습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신뢰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경선 룰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과 대결 구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일 견지동 안국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재섭 대표가 발표한 당 쇄신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내분사태 키 잡은 이재오 여전히 침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일 '강재섭 체제'의 유지를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4·25 재보선 참패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도 '침묵'을 지켰다.

미련없이 던지려 했던 최고위원직을 일단 유지하기로 한 이 최고위원은 당초 이 전 시장과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핵심 측근은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만 전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격인 이 최고위원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측근들은 '잔류'로 입장을 정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이 전 시장이 모든 입장을 발표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말을 아끼는 것"이라면서 "당분간 침묵한 뒤 근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애초 사퇴의지가 강경했는데 당과 후보, 캠프의 만류로 뜻을 접었으니 당장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면서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강재섭 대표가 사퇴요구를 거부한 채 쇄신안을 발표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가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회동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여옥·강창희·전재희

"복귀 절대 없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재섭 대표의 당 쇄신안 수용입장을 천명하면서 최근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복귀할 뜻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나 사퇴 당사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전여옥 전 최고위원은 "사퇴를 철회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 눌러앉는다면 강재섭 대표와 뭐가 다르냐"면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강창희 전 최고위원도 "책임지고 그만 둔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거(최고위원)를 또 하느냐"라며 "내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전재희 전 정책위의장의 한 측근은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그만뒀는데 이 전 시장이 다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최고위원직에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화전당 설계 동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문화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 성공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하개방형 설계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물론 광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전당의 지상형 랜드마크 기능과 전문공연장 추가 건설 등 논란은 추후 보완해 나간다는 전제를 내걸긴 했다.

그러나 문광부의 지하개방형 설계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동구 비상대책위와 예총 측이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랜드마크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입장**=연석회의는 지난 1

추후 보완 등 전제 입장

동구 대책위·예총 반발

랜드마크 논란 계속될 듯

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기존 설계안에 동의하며, 지상화된 랜드마크와 전문공연장 건설 등은 향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다수의 단체들이 공감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서정훈 사무처장은 "연석회의는 현실가능한 대안을 찾는 차원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채택했다"면서 "다만 동구의 지상화된 랜드마크와 예총의 전문공연장 건설 등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보완,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논란**=그러나 연석회의 참석 단체인 예총 광주시지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동구비상대책위'는 동구 주민들과 의견 차가 너무 크다며 앞으로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예총 김정 사무처장은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빠른 사업 추진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예총은 현재의 설계안에 반대하며, 반드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공연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구비상대책위 조영수 위원장은 "동구 주민들은 지하설계를 지상으로 바꿔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국제관광명소가 될 별도의 건물을 전당 안에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랜드마크 기능 강화 문제는 시민 대다수의 요구인데, 일단 설계안대로 착수하고 나중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의 성격을 잘 모르는 관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광부가 최근 우규승 설계자의 광주 방문시 지하개방형 설계에 어린이지식박물관의 지상 돌출(12m) 등을 추가해 랜드마크 보완이 충분한 만큼 지상형 랜드마크 및 전문공연장에 대한 설계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연석회의의 주장 대로 추후에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도 같은 입장이다. 손재홍 문화수도 특위 위원장은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추진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여서 또다시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 등의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하는 문광부**=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은 "지역에서 의견을 결집해야만 문광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힘을 모아주고,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반색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DJ "금년 후반기 가면 양당대결로 압축"

4·25 대전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가 2일 당선 인사차 동교동 자택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대통령은 심 대표를 만나자마자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많은 표차로 이기셨더라"며 덕담을 건넸다.

심 대표는 "대통령 후보도 (국중당) 독자적으로 낼 것인가"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질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계획"이라며 '독자세력화' 스탠스를 내비쳤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결정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당제도일 것이다. 금년 후반기에 가면 양당대결로 압축될 것"이라며 범여권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